명상 대가 서울로…'세계 명상의 날 포럼'

정토회 · WMDC 3월 20~21일
12개국 26명 종교인 등 참석
'세계 명상의 미래' 주제 논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세계 12개국 명상 대가들이 명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스님)와 세계 명상의 날 위원회(WMDC)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세계 명상의 날 제2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하나된 마음, 과학과 전통을 잇는 세계 명상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12개국 종교 지도자, 명상가, 과학자, 학자 등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세계 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더 나은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종교·학문·국가 간 다양한 견해와 영감을 교류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앞서 '제1회 세계 명상의 날 포럼'은 2025년 10월 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150여 명의 저명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회 포럼에서는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명상 표준 체계 정립을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공통의 어젠다로 선정했다. 이어 2025년 12월 21일 저녁 9시 '제1차 세계 명상의 날 지구촌 15분 동시 명상'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5개의 세션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과관위원회 위원장의 특별 축사와 석종사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1세션에서는 재그프리트 차트왈 교수(하버드, 매사추세츠 병원 기술평가연구소장)와 마크 호세 라인하르트 대표(이슬람 수니 명상 지도자)가 '현대 과학과 정신세계의 격차를 좁히고 통합된 명상 환경의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불교,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유교, 도교 등 각 종교별 명상지도자들의 다양한 명상 전통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저녁 세션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종교의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행사 둘째 날은 '명상의 과학적 기초'를 주제로 하여 장동선 박사(카이스트 뇌과학자), 린 후앙 대표(행복대학 창립자), 네이선 지신 미션 박사(류코쿠 대학 및 웨스트 대학 겸임교수) 등 8명의 과학자, 의사, 교수 등이 '명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류의 웰빙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명상의 과학성'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발표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명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과 공동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현대인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한 해법과 더불어 기후 위기, 사회 갈등과 분쟁,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명상의 효과에 주목했기에 유엔이 '세계 명상의 날'을 지정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각 종교, 학문, 국가들의 다양한 명상의 전통을 활발히 교류하고,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세계 명상의 날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된다.

로터스월드·비로자나선원, 캄보디아 초등생 지원

2월 27일, 215명에 학용품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도


로터스월드와 비로자나 국제선원이 캄보디아 시엠립 주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재학생 215명에게 교복, 체육복, 책가방, 학용품을 지원했다.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비로자나 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이 캄보디아 시엠립 주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재학생 215명에게 교복, 체육복, 책가방, 학용품을 지원했다.

2월 27일 열린 기증식에는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꺼우깍(Kok Kak) 마을 주민, 홍 나이첸 로터스월드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국 국가 제창, 내빈 소개, 환영사, 축사, 물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혹 팔리(Hoch Phally) 교장은 "비로자나국제선원과 로터스월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반나 보파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 가방, 교복, 체육복을 지원해 준 한국의 비로자나 국제선원에 감사하다"며 "학교를 새로 지어 주고, 학용품도 매년 지원해 줘 친구들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이번 학용품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원한다. 스님은 "학용품, 교복 등 물품 지원과 병행해 올해부터 매년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사찰 신도들이 발심해서 설립한 꺼우깍-비로자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215명의 초등학생이 재학 중인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는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과 신도들이 모연한 기금으로 2022년 4월 신축·개교했다. 교실 2개동(총 8칸), 화장실 4칸, 정수시설 1개, 소각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는 지역 내에서 가장 쾌적한 시설을 갖춘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또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로자나 국제선원 신도들은 로터스월드를 통해 재학생 27명과 1:1 아동결연을 맺고 매월 쌀과 학용품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해외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개설한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첫 강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0돌 동국대, '참 나 찾는 여행' 특별 강좌

건학 120주년 기념해 운영
10인 명사 초청 특강 진행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건학120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자아 성찰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특별 교양 강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적 성장을 넘어 '창조적 자기 진화'를 목표로 하며, 사회 각계의 명사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난다.

초청 멘토 특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재철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손종원 셰프 △이재용 아나운서 △홍석천 방송인 겸 사업가 △썬킴 역사스토리텔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태민 오태버스(주) 대표이사 △윤승철 작가(세계최연소 극지 마라톤 그랜드슬래머) △김민석 극단청명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

체험형 힐링 실습프로그램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면치유 과정을 제공한다. 산림청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자연교감 프로그램 '남산 힐링 숲체험', 명상과 휴식의 시간인 '1박 2일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통해 내면의 단단한 자아를 깨우는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재웅 총장은 3월 3일 첫 강의에 참석해 "이번 강의는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압도적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신중일 기자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

포교사단, 3월 7일 올해 사업 확정
강의수 단장 "시대 맞는 포교방식"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의수)이 올해 슬로건을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로 정하고 조직 역량 강화와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특히 구성원 재교육을 실시해 포교사 개개인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범 제26주년 및 제13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 앞서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의수 단장은 올해 활동 슬로건을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로 제시하고 즐겁고 품격 있는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널리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 기조로 △포교 성장 및 포교사 위상 강화 △효율적 조직 및 인력 관리 △포교사단 방향성 정립 △화합과 제도개선 활용 등이 제시됐으며 신규 포교사 증대 및 새로운 포교 방안 강구를 위한 홍보 강화, 수행 중심 활동 독려, SNS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의례, 불교명상, 불교문화 등 4대 분야 재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수 단장은 "안정된 조직 발전과 함께 포교사 개개인이 현장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방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보살행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중근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와 제주지역단 제주총괄 교정교화팀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김종례 서울지역단 포교사와 부산지역단 경찰포교 대세지팀 등 20명의 개인 및 11개팀이 '포교사단장상'을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방재 관제 시스템, AI 고도화 시급

1면에서 이어짐

초동 대처부터 장기 로드맵까지

초동 대처부터 화재 방재시스템 고도화, 유산·사찰별 종합 대책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들도 제언됐다.

성원 스님은 AI를 이용한 사찰 방재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스님에 따르면 1000여 곳의 사찰에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구축한 방재시스템이 있으나 노후화와 오작동의 문제가 적지 않다.

현무 스님은 사찰별, 문화유산별, 상황별 방재 대책과 상황 대응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지리산 법계사 삼층석탑은 해발 1400m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런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찰마다 재난 상황이 전부 달라 일괄적인 매뉴얼로는 대응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유산·상황별 종합적 방재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주 국가유산청 상근전문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종합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만, 방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의 산불 대응을 위한 실무TF를 구성해 내년 예산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차기 회의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안전부 등과도 확대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갈등·대립 벽 허물길"

1면에서 이어짐

불교시민사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합의나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력에 의존한 일방적 공격과 보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더 큰 파괴와 희생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중단 △이란의 군사적 긴장 확대 행위 중단 △모든 당사국의 보복과 군사 대응 중단 및 외교적 해결 노력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와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생명을 해치는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과 파괴의 길이 아니라 자비와 공존,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생명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전쟁 중단과 평화 실현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모든 총성이 멈추고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사찰연합회는 3월 6일 서울 삼원사 대웅전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인류화합과 전쟁종식을 위한 간절한 발원문'을 통해 전쟁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향한 간절한 자비의 마음을 표현하며 "간절한 발원이 헛되지 않아, 모든 생명이 전쟁 공포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함께 웃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또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남겨진 이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두터운 벽을 허물길 염원했다.

동참 대중들은 "세상의 평화는 개인의 마음평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겠다"면서 "내 안의 미움과 원망부터 내려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미소로 평화의 물결을 넓혀가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 임은호 기자

공무원불자聯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3월 7일 서울 법련사서 신년법회
진경 스님, 청정 책임·실천 당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가 3월 7일 서울 법련사 대웅전에서 병오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공무원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사진〉

공불련 전·현직 회원 1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금강경〉 독송과 정근으로 시작됐다.

진명기 공불련 비대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인사말에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작은 판단 하나, 말 한마디, 행정 한 건이 곧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불자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직 업무의 현장 하나하나가 곧 수행 도량이라는 마음으로 원칙은 굳게 지키되,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는 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공불련 회장은 공석 상태로, 지난해 12월 비대위를 구성해 제14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진명진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새로운 회장이 취임해 공직 사회에 부처님 법을 더 널리 펼칠 수 있게 되길 발원한다"면서 "새로이 구성되는 집행부와 더불어 회원 상호 간 수행과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청정한 공직 문화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직무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면서 공무원 불자로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해내는 책임과 실천을 당부했다.

이날 공무원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청정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같이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변치 않는 신심으로 정진하겠다"면서 "부처님 법신이 법계에 두루 퍼져 온전한 불국토가 이뤄지길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임은호 기자